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논평

문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공단 재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대했던 우리에게서는 너무 막연한 것이기에 크게 실망스럽다.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 하다고 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남북의 평화정착과 경제 협력을 위해 선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4년이나 기다려온 우리에게 공단 재개 노력 계속이라는 막연한 약속은 크게 실망스럽다. 이제는 남과 북의 상생과 평화·공동번영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실천적 행동을 자주적으로 결단 해주기를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7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